

연 중 제 26 주 일

기 도 서 P. 444 C해

1독(아 모 6, 1a. 4-7절)
2독(디 모 전 6, 11-16절)
복음(루 가 16, 19-31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칼론□



우리는 뼈있는 집안

오 현 택 신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버렸으나, 모든 것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승리한 우리 조상 치명자들의 죽음을 내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됐으며 조상을 추모하며 기리는 중추절을 또한 맞이하게 됐습니다.

1784년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본명으로 영세한 이후 이 금수강산에 하느님의 복음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하였지만 가는 곳마다 피로 세워지고 피거름으로 자란 하느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근백년동안이나 모진 박해(신유 1800-1801, 기해 1839-1841, 병인 1866-1867)가 계속되었지만 복음의 씨앗은 더욱 깊은 뿌리를 박고 더욱 튼튼히 차랐습니다. 우리 조상 치명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경에서도 위로를 받았고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었고 외로운 곳에서도 외로움을 몰랐고 숨어 살면서도 행복을 느꼈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짜증을 몰랐고 실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치명자들의 후손입니다. 약 200년후인 오늘, 우리의 생활과 우리 조상 치명자들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현재 생활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매일 성당에 갈 수 있고 신부님을 만나 뵈울 수 있고 어디서나 땃땃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때문에 재산, 명예, 직장, 가문도 버릴 필요가 없으며 가정도 떠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은 뼈있는 치명자 후손답지 않게 너무도 미지근합니다. 주일만 지키는 주일신자, 봉헌금 몇푼을 아끼는 인색한 신자, 육신의 안일과 현세의 출세, 부귀에만 열중한 신자, 가문의 번창과 자손의 출세만 하라고 걱정하는 신자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태도가 아닌지 반성해 봅시다.

끝으로, 뼈있는 치명자 후손의 긍지와 주체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복자 유대철(베드로)과 같이 불덩이라도 입에 넣는 용기, 복녀 골롬바, 아녜스 같은 모진 매에도 굴하지 않는 주님께 대한 순결한 사랑, 복자 최방지겨와 같은 열광적인 전교열을 본받아 실천합시다.

“나도 사람이다. 그도 사람이다. 그가 이것을 했는데 나 어찌 잘 할 수 없으랴”(성 아오스딩).

우리조상 치명자들이 피와 목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우리는 등뼈가 굽어지고 두더지 손이 될 때까지 탐과 수교로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서학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우리의 결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눌린 사람들은 보게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신포하게 하셨다”(루가 4, 18-19).

우리는 교회성서와 공의회 문헌, 한국주교단 메시지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려 인권회복, 민주회복,을 외쳐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은 점점 심각해져만 가고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더욱 조되고, 양심수인들만이 날로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또한 오늘의 사회 정의구현에 몸 바쳐야 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절감하지 못하여 모세의 고달픈 순례(민수 1장-12장)를 기피했고, “착한 사마리아인들(루가 10, 25-37) 동경했을 뿐, 그 사마리아인은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행동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야고 2, 14-26)이라는 질책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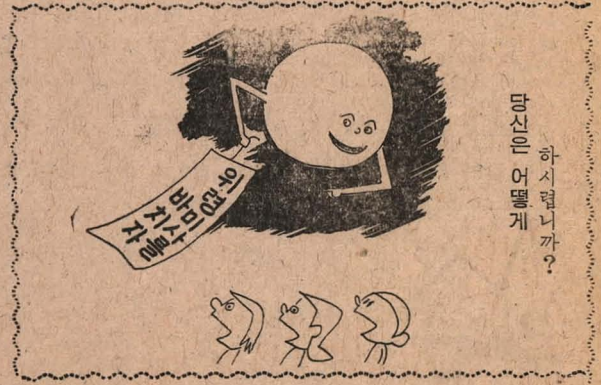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속에서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져 열열히 기도하고 1977. 9. 12일부터 단식기도를 계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짐한다.

1. 가난하고 억눌린 형제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우리 자신의 내적해신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신앙행위를 계속한다.
2. 인간 기본권을 저해하거나, 독소가 되는 모든 법체제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한다.
3. 긴급조치로 구속된 학생, 교수, 근로자, 민주인사 성직자의 석방을 계속 촉구한다.

1977. 9. 20

한국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숲 정 이 산책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성서 교실⑩ □



야고버서 해설

김윤태

저자 : 이 서간의 저자는 자신을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그를 「주의 형제인 야고버」로 본다(마태 13, 55). 이 야고버는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었고 기원 후 62년 경에 순교하였다.

물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나 초대 교회에 야고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 5명이나 등장하여 여기서 말하는 야고버가 어떤 야고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제베데오의 아들인 사도 야고버(마르 1, 19)가 아남은 확실하나(사도 12, 2) 알레오의 아들인 사도 야고버(마태 10, 3)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는 설이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4세기에 동·서방교회 전반이 야고버서를 정전으로 인정하면서 알레오의 아들인 사도 야고버와 예루살렘의 감독인 야고버가 같은 사람이라는 주장이 우세해졌으나 근래에는 다시 그 반대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사정이 어떠한 이 서간이 보여주는 아라메아적 표현 방법과, 저자가 구약사상에 통달하였던 점으로 보아 그가 예루살렘의 감독 야고버라고 할 수 있다.

수신인 : 야고버서 1장 1절에 나타난 수신인들은 「흩어져있는 12지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서간안에 서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된 사람들, 즉 유대아제 기독교자들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유대아제 기독교들과 외교계 기독교자들을 통털어 의미할 것이다. 사실 교회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갈라 6, 6).

집필 장소와 연대 : 이 서간이 예루살렘의 야고버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예루살렘에서 62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실 이 서간에서 야고버는 신자들의 열성과 신앙이 식어졌다고 하는데 이걸 보아 그의 생애 말기인 62년 이전에 저술되었다 할 수 있다. 1세기 후반경이라는 때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일치하고 있다.

집필 동기 : 저자는 이 서간을 집필함으로써 당시 이완되었고 지쳐있던 교회를 (5, 19 이하) 이스라엘의 지서문 학유형의 전통을 따라서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려 했다.

문학 유형 : 이 서간은 완전한 편지 형태가 아니고 일종의 세련되지 않은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창작부분은 많지 않고 지혜문학에 속하는 잠언, 지서, 집회서, 도비아서, 12성조의 유언서, 조상들의 금언집 같은 유대문학을 인용하고 있으며 예수의 사상도 당시의 구전을 따라 인용하고 있다.

내용 : 이 서간의 두가지 큰 테마는 ①약한 자에 대한 사랑스런 관심과 ②신앙의 생활화이다. 약자에 대한 관심은 유대교의 오랜 전통일뿐 아니라 예수의 거듭되는 가르침과 일치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주장도 구약과 신약의 예수나 바울로 가르침과 일치한다.

□순교자 헌양 글짓기□



심사평(審査評)

이승헌

85편의 응모작품을 받았을 때, 첫째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양적(量的)인 면에서 분다고 해도 그만큼 응모자가 적었다는데서 우선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벽지 교회의 일반부 노인들의 응모작품을 대했을 때, 심사자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또 한편 중고등학생들의 작품을 보았을 때, 몇몇 학생들은 노트 쪽지에다 낙서를 하듯 그림을 그리고 마구 난필로 글을 적어 응모했다는 점은, 무모(無謀)한 용기를 내는 데는 딱하더니 보다는 경계를 아끼고 싶지 않다. 본래로 느긋대로 쓴다는 것은 하나의 잠문(雜文)은 될지언정 “산문이나 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품이란 양적인 풍작(豐作)보다는 질적(質的)인 풍작을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글을 써보겠다는데 앞서 자신(自身)을 가누고 나갈 기초공사(基礎工事)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바로 그 작자(作者)를 이끌고 나갈 주체성(主体性)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년 「순교자 헌양대회」에 더 큰 기대를 걸면서 이번 응모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 하옵기를 빠편다.

(필자 : 시인,

前월간 약진전북 문예부장, 문인협회 시분과 위원장)

※ 입상자 명단

□우수상

- 중고등부 박미선(전동)···“신념”
- 양춘옥(상관)···“순교복자”
- 일반부 임점배(김제)···“聖火”

□입선

- 국민학교부 장진숙(전동)이상원(서학동)이태화(서학동)
- 중고등부 김강자(정읍), 김영숙(정읍), 박경준(장수), 송애연(팔마), 유아가다(서학동), 정보영(용안), 정영순(고산), 지연화(화산)

- 일반부 박창순(남원), 서재철(화산), 윤갑남(노송동)
- 이경애(상관), 이덕근(주현동), 최금환(정읍)

※입상자는 적당한 기회에 상품 찾아가시기 바람
출품자 전원에게 기념 볼펜 드림

설계·감리·허가수속 □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사제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 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MCGREGOR

☆삼성물산☆

맥그리거

전주 특약점

고급화된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울리안나)

☎ ④ 4 4 5 1 풍년제과 분점앞





순 교 복 자

□ 순교자 현양 글짓기 □

상관중학교 2년 양 춘 옥

순교는 종교의 참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행위이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을때 천주교를 처음 알게된 우리 조상들은 이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물을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열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때 나라의 세도를 잡고 있던 사람중에 천주교 믿는 사람을 몹시 미워할 마음씨 나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매질하는 등 심한 고문과 벌을 주며 천주교를 못 믿게 위협하였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는 종교이므로 죽으면서도 천주교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잡히어 고문 끝에 순교지에서 죽으며 자기 종교에 거 것이 없음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하느님만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을 교회에서는 가려내어 공경하도록 정하였는데 그런 분을 <복자> 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103분의 복자가 있으며 우리 전주 교구에도 피흘린 쌍백함으로 유명한 동정부부를 위시 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 9월은 이런 순교자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공경하는 복자 성월이라고 한다.

지난번 우리 학생회에서도 전주 치명자 산에 간일이 있다. 가랑비가 촉촉히 내리는 미끄러운 길을 우리는 올라갔다. 우리들이 동정부부 유 요한과 이 누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도 가랑비는 여전히 내렸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예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순교한 거룩한사람이여! 전능하신 천주께 전구하시어 성스러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또한 당신 교회를 더욱 발전케 하시며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더욱 착실히 지키게 하소서 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방 일우의 처사국으로 자처하던 이 쇠국 조선에 들어온 경위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중국 북경으로 건너가 복음을 가져와서 독창적으로 전교 하였다.

이것은 우리 한국 천주교 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요 영광이다.

당시의 지리적 조건과 한 민족의 개성과 전통이라는 자연적 여건도 있었지만 가장 발달하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인 우리 겨레에게 천주님께서 이와같은 특별한 섭리를 베푸실에는 구제사업에 있어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과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재전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긴급한 사명을 띠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이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 얼마나 위대하고 그 얼마나 신덕이 굳었던가를 다시 생각하여 그들의 후손된 증거를 간직함과 함께 그러한 후손의 자격을 갖출것이며 목자들의 한팔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진리와 성총으로 정복하여 그리스도 왕국을 확충하는 책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요심이 (217) 김병오



□ 아동복 전문 □

까치의 집

이 윤례 (테레사)
남중학교 정문 옆
(남노파출소 ↔ 동부시장)

□ 타자수리, 취업알선, 매월검정 □

뉴-타자 학원

원장 신송무 (바오로)
전화 ②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 사진기계 · 사진재료 도산매 ◎

태 광 사

(구 태양사)
유영문 (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

세느 의상실

최춘자 (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전화 ②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 (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 조제약 전문 —
김을태 (베드로)
☎ 육교옆 중앙시장동
(전화 ③ 4577)

□ 개원안내 □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소아과) 앞
원장 김현 (아오스탕)
전화 ② 1665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 다음주(10월 2일)는 각분당 공지사항 없이 순정이가 제직됩니다(출판사의 추석절 휴일 관계) 분당에서는 소식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추석절 활동 위령미사**
추석을 맞아 먼저 가신 조상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각 분당에서는 이날 활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 모두 정성껏 미사에 물을 봉헌하고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이날 봉헌된 미사에 물 전액은 순교자 기념관 건립등 특별목적에 위해 쓰여집니다
 2. 9월 26일은 교황성하 80회 생신일...정성껏 기도하십시오.
 3. 다음 주일(10월 2일)은 제10회 군인주일...국토방위에 수고하는 국군 장병을 위한 특별 헌금 있음
 4. 덕진 성당 준공식(10월 3일 오후 2시)
 5. 4지구 추석활동 위령미사(27일 오전11시, 교회묘지, 주교님 집전)
※순교자 현양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구 평협 누갈다 묘소 주변 정화를 위한 정성어린 헌금32,860원, 감사합니다-성프란치스코 재속 3회 진복지부
- 방송안내...문화방송(MBC)...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한 봉섭 신부 방송
서해방송(SBC)...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소 순형 신부 방송
...생활종교(매월 첫주일 아침 7시 40분, 10월 2일, 김준호 신부 방송)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김익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첫 성체 : 25일 공식미사 중
2. 추석(27일)활동 위령미사 : 오전 6시, 11시(교회묘지) 오후 7시반
3. 유아세례 : 9월 30일(금)어머니 미사 후
4. 방지거 3회 월례회 : 10월 2일 오후 2시반, 임회·허원식 있음
5. 노인학교 : 매주 (수)오후 2~5시
6. 축 테레사 축일! (10월 1일)축하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영희
보좌 신부 권용용
사도 회장 박종용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청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3. 추석활동 위령미사 : 오전 11시 (공동묘지), 오후 7시 (분당)
 4. 한국 복자 대축일(26) : 저녁 7시반 미사만 있음
 5. 치명자산에서 미사 : 9월 30일(금)오전 10시
 6. 어린이 영세식 : 10월 1일(토)오후 2시
 7. 77년도 교무금 25%추가책정, 교회 회계년도가 변경(9월말→12월일)되었으니 착오없기 바람
※ 자세한것은 사무실에 문의바람
- 지난주 봉헌금 : 26,376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성가연습 : (월·수·토) 오후 3시, 학생·청년-(토·일)미사후
 2. 추석활동 위령미사 : 27일 저녁 7시반
 3. 10월 첫주는 군인주일! 정성껏 봉헌 합시다
 4. 미사는 앞자리에서, 시간 엄수 바람, 특히 청년, 학생...
 5. 신축 비품산입 감사!
-미사지향 안내관(어머니 성가대, 미사 순서 안내관(치명자의모후 P.)
 6. 새성당 조경에 협조를... 신입은 분당 사무실에
- 지난주 봉헌금 : 5,170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확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임원, 구역, 반회장, 고문들 빠짐없이 참석바람
구역회장 (다가동-이정우, 중앙동-홍명선, 교사동-

이호재, 화산동-노환규, 완산동-조식, 태평동-송영자, 진복동-서용현, 기타-허순덕) 반회장(다4-1...유순자, 다4-2...신영애, 다4-3...이인자, 다 3가...김정례, 다1·2가...허로사, 중앙동...임부례, 교사1가...박성순, 교사2가...이순형, 화산동...노환규, 완산동-조식, 태 2-1 ...최소자, 태2-2...최일병, 태2-3...최복주, 태2-4...홍안나, 태2-5...김 바울라, 태2-6...신방지가, 진1...김행자, 진-2양마울라, 진3-김안나, 기타-허 테레사

2. 추석활동 위령미사 : 27일 오전 6시, 정성껏 봉헌합시다
 3. 미사시간 변경 : 아침 미사...6시, 저녁미사...7시
 4. 교무금 9월 내로 완납 바랍니다
 5.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 10월 2일 부터 밤 8시, 성당에서 시작(1박2일)
- 지난주 봉헌금 : 18,920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유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청소년 월례회 : 10시 미사 후
 2. 추석활동 미사에 물 빠짐없이 정성껏 봉헌 합시다
 3. 추석불우 이웃돕기 헌금 : 오늘 주일 2차 헌금에
 4. 추가 교무금 통장 배당 받아가세요, 밀린 교무금 조속 완납바람
 5. 야외미사 : 10월 1일 오후 4시, 치명자산
※ 주일학생 및 뜻있는 분들의 참여 바람
 6.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매회회 가입식 : 9월 10시 미사 중
- 지난주 봉헌금 : 19,305원

(순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추석활동 미사 : 27일(화) 오전 9시(분당), 오전11시(교회묘지)
※ 미사 예물-26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2. 중고생 특전 미사 : 매(토)오후 7시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여 바람
 3. 회장단 합의에 따라 반사회 가지기로, 해당일정에 빠짐없이 참석바람
 4. 신자들의 기도 : 강용환, 이명재, 오순화
- 지난주 봉헌금 : 57,250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중

- ※ 26일은 순교복자 축일!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1.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반
2. 어른 남녀 교리 : 10월 첫 금요일 밤8시
3. 추석활동 위령미사 예물 사무실에 접수바람
미사시간 새벽 6시, 오전11시(공동묘지), 저녁 7시반
4. 동반장 회의 : 매월 첫주일 밤
5. 새성당 건립헌금 신입총계 30,750,000원
명단은 차후발표, 신입금액은 속히 납부바람